

## 문화기술로 되살린 '마한시대 금동신발' 상설 전시

등록 2017.02.26 08:00:04



GIST 3차원 홀로그램 영상기술 이전

【광주=뉴스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문화기술을 적용해 3차원 홀로그램으로 되살아난 고대 유물이 기술이전을 통해 국립박물관에 상설 전시됐다.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전남 나주시 북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마한시대 금동신발의 3차원 홀로그램 영상기술을 국립나주 박물관에 이전하고 상설 전시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는 GIST 기계공학부 이관행 교수팀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개발연구지원 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복합재질 측정 장치'로 유물을 촬영해 금동신발의 기존 형상과 재질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했다.

이번 기술이전과 상설 전시는 지난해 3월 GIST와 국립나주박물관이 공동 개최한 기획전 '마한 금동신발 홀로그램 체험전'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추진했다.

GIST는 최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획전 전시물의 보완 과정을 거치고 박물관 상설 전시공간에 설치했다.

전시물 중에는 금동신발 바닥면의 물고기 장식이 생동감 있게 유영하는 모습을 고해상도 홀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복원한 것도 있어 고대인들의 예술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박순보 소장은 "이번 전시물은 GIST가 개발한 문화기술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되살리는 데 기여한 좋은 사례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